

We Think Patients First

국경을 넘어 오늘도 환자를 치료합니다
환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후원 신청하기



0664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64 여운빌딩 3층 국경없는의사회
후원문의 02-3703-3554 | 팩스 02-3703-3502 | 이메일 majorgift@seoul.msf.org





우리는 생명을 치료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환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우리는 **'국경없는의사회'**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에 설립된 독립된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로 전 세계 80여 개국의 무력 분쟁, 전염성 질병, 자연재해,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험난하고 소외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구호 활동가의 숫자는 4만 명이 넘습니다. 구호 활동가들은 의사, 간호사, 약사, 물류 전문가, 행정 담당자, 역학자, 정신 건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의료 윤리를 준수하며, 인종, 종교, 성별,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평화상 문화재단
 THE SEOUL PEACE PRIZE CULTURAL FOUNDATION
 1996년 서울평화상 수상 / 1999년 노벨평화상 수상

41개국 사무소, 5개 운영센터 운영

국경없는의사회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1개 사무국에서 구호 활동가 모집 및 파견, 기금 모금과 옹호 활동을 진행 중이며, 5개의 운영센터에서 구호현장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80여 개국에서 의료 구호 활동 진행

분쟁 지역과 의료사각지대, 자연재해, 전염병 창궐 지역에서 의료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료활동

무력 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는 곳은 항상 응급 상황입니다.

- 외래진료
- 병원/진료소 건설
- 영양실조 치료
- 난민 수색 및 구조
- 결핵 치료
- 외과 시술
- 심리/정신과 치료
- HIV/AIDS 치료
- 출산지원
- 식수 위생 개선 사업
- 전염병 대응
- 입원환자 진료
- 이동 진료소 운영
- 예방접종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공습으로 화상을 입은 어린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 (2023년) ©MSF

국경없는의사회 의료팀이 수단 바샤르 병원에서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 (2023년) ©MSF

차드 쿠프른 지역 난민 캠프에서 아동 홍역 예방 접종 실시중인 국경없는의사회 (2023년) ©MSF



국경없는의사회는 폭격이 빚발치는 전쟁 지대와 전염병 지역 등 열악한 의료사각지대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달려갑니다. 때로는 천막 진료소에서 또는 텐트 병원에서 진료가 이루어지지만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의약품과 의료 품목들은 엄격한 품질보증 시스템에 의해 관리됩니다.



구호현장에서 약사들은 환자들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약품을 조달하고, 의약품의 안전검사나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지역 중에는 약물복용, 또는 영양공급만으로도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약품을 신고 가장 소외된 곳까지,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까지 차량으로, 헬리콥터로, 보트로 찾아갑니다.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세계 곳곳의 의료사각지대의 환자를 치료하는 파트너가 되어주실 한국 약국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기다립니다.

2023 국경없는의사회 구호 활동가

2023년 총 15명의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구호활동가가 전 세계 16개국 인도주의 위기 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이효민
마취과의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필리핀, 남수단, 파키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라이베리아, 차드 (2012 - 2023)



정상훈
일반의

수단 (2022-23)



정현걸
내과의

차드 (2023-2024)



홍기배
소아과의

에티오피아(2022-23)
수단(2021)
레바논(2018-19)
남수단(2016)

구호 활동가가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약사 최정윤

2011년 첫 파견

활동국가: 요르단, 우간다, 말라위, 짐바브웨, 라이베리아, 우간다, 남수단, 나이지리아, 인도, 터키,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구호 현장을 벌써 10번 이상 나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저는 현장 의약품 매니저로서 현지 직원인 항공 약사(flying pharmacist)와 함께 원활한 의약품 공급 및 조달을 진행하기도 했고, 모바일 실행가로서 현지 약사들에게 부분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도움으로 누군가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건강을 되찾는 걸 볼 때 뿌듯합니다. 사망률을 낮추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내가 쓰는 돈이 남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인다는 보람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사 강경애

2022년 첫 파견

활동국가: 시에라리온, 브라질

국경없는의사회 아웃리치팀은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까지 차량이나 모터바이크를 통해, 아니면 걸어서라도 일단 들어가서 수요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약품을 공급하려 노력합니다. 저는 약사로서 팀에 합류하여 외딴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꼭 필요한 약국 내 의약품의 저장 상태, 재고 확보 및 의약품의 유효기간 확인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환자들에게 제대로 투약되는지 관리하고 현지 직원을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치료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경없는의사회는 그 믿음을 충족시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인간을 존중한다는 편견 없는 가치와 그에 대한 신뢰를 추구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약사 임희정

2017년 첫 파견

활동국가: 말라위

저는 HIV 및 결핵 프로젝트와 자궁경부암 프로젝트를 함께 맡아 총 34개의 진료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말라위 치라줄루는 HIV 양성 비율이 50%에 이르는 곳입니다. HIV는 효과적인 진단 도구와 약품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면 대부분 사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감염자의 50%를 차지하는 어린이, 청소년들과 매주 환자 교육과 정기 혈액검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물류전문가, 자원봉사자, 약사, 의사, 간호사 전 스태프가 협동하는 모습은 큰 자극과 감동을 주었고, 저에게는 환자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갈 거예요. 좀 더 단단히 준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약국후원, 환자를 치료하는 든든한 원동력이 됩니다.



“
저는 '국경없는의사회'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의약품 구입을 위한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후원자가 곧 '구호 활동가'입니다.

제가 후원한 그 마음이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한 알의 약이 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이 아플 때,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시고 봉사하시는 그 마음을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의료사각지대 환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 강경애 구호 활동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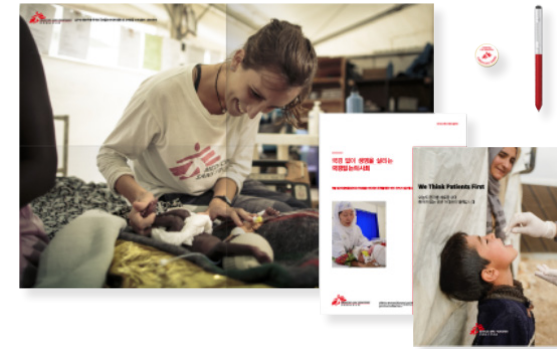
3,000,000원 후원의 가치

*아래 예시는 일부 항목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가치로 활용됩니다.

홍역백신	8,333명 접종	홍역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하지만 예방이 가능합니다.
항말라리아치료제	2,625명 치료	말라리아는 치료받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핵치료항생제	667명 치료	결핵은 감염성이 있고 악화되면 극도의 고통을 받고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콜레라키트	115명 치료	콜레라는 독성이 강하고 진행이 빠르며 치명적입니다.
모기장	100가정에 제공	말라리아 감염 모기에 물릴 위험성을 줄여 안심하고 잘 수 있도록 합니다.
영양치료식	67명이 5주간 치료	영양실조는 일부 국가에서 5세 미만 아동의 목숨을 빼앗는 최대 원인입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1명이 50일간 파견	위험에 처한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수많은 생명을 지킵니다.
가족용텐트	5가정에 제공	폭우부터 폭염까지 갖가지 악천후 속에서 가족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응급의료키트	3개 구비	기본 의약품과 소모품, 부상 및 상처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텐트병원	2개 구비 (병상 20개 수용)	분만실, 수술실, 병동이 되어 생명을 구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재난지원키트	0.3개 구비 (키트 1개 850만원)	3개월 동안 10,000명의 환자를 치료하기에 충분한 수술 도구와 드레싱 키트, 각종 필수 의약품이 들어 있습니다.

후원약국에 드리는 감사 예우

- ①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공통)
- ② 정기후원 30만원 또는 일시후원 300만원 이상 후원해주시는 약국에는 후원약국의 이름을 넣은 국경없는의사회 후원약국 현판과 배지를 드립니다.
- ③ 위에 해당하는 후원약국에는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에 약국명과 인터뷰를 게재해 드립니다.



후원방법 안내

01_후원신청서 작성

팩스 02.3703.3502
이메일 majorgift@seoul.msf.org

02_계좌이체

신한은행 140-009-508856
(예금주: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03_후원사이트

msf.or.kr/pharmacy
(후원→약국후원)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긴급 의료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sf.or.kr